

# 2015.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1.27.	대전MBC 대회의실	8/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권홍순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9	-	1	17	-	17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8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12월
교양	건강관련 프로그램 현실감 있게	건강관련 프로그램 발병원인, 진단방법, 치료과정 현실감 있게 제작	12월
교양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구성력과 편집 호소력 있게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구성력과 편집 시청자들에게 가깝게 제작	1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여 진행자 시선처리 어색함을 벗어나게	교양 프로그램 여 진행자 시선처리 교정	12월
교양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여행지 특성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여행지 특성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함	12월
보도	세종시에 보다 체계적인 뉴스 접근 필요	세종시 지속적으로 보도	12월
교양	건강관련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할 것	건강관련 프로그램 홈페이지 연계 진행	12월
보도	지역의 이슈를 적극 개발, 발로 뛰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지역화제성 기사 적극 발굴 기사화	12월
교양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시사 문제 적극적 자세로 제작 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시사 의욕적, 적극적 자세로 제작	12월
보도	뉴스 자막 맞춤법에 맞게 처리 요	뉴스 자막 맞춤법에 맞게 처리	12월
보도	좋은 뉴스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며 혁신을 해야	좋은 뉴스제작 위해 각고의 노력함	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5.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이번 주 '전국이 보인다'(1월 17일)는 겨울 바다 수영대회와 레드향, 전통차문화 등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흥미롭게 소개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정보는 지역민에서 매우 유익하였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겨울바다 수영대회에 대한 소개의 경우 자체온증, 경련 등의 잠재적 안전사고가 많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다.</p> <p>또한 기존 방송과 달리 이번 주는 국외지역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전국의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전달한다는 방송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더욱이 타 방송의 해외 관광지 소개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전국이 보인다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외 지역의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어야 할 것이다(오덕성).</p>	<p>전국이 보인다는 전국 각지역의 명소와 화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에는 이색 풍물로 크로아티아 편을 소개하였는데, 내용의 배치상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보다 더 세밀한 구성으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1월23일)에서 「골프존, 상생은 없는가?/일상으로 들어온 기부」 편을 방송하였다.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골프존의 영업 방식으로 인한 기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과 골프존의 의견 충돌의 내막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p> <p>시사플러스에서는 기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이 처한 상황을 규탄 시위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통해 알리고, 골프존측의 입장도 인터뷰를 통해 공정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본 방송을 통하여 무분별한 스크린골프장 증가 실태를 담아 시청자들이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대립적 관계에서 책임의 여부를 넘어서 대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p>1/23에 방송된 &lt;골프존,상생은 없는가?&gt;편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기업문화를 포함한 모든 감-을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이탬이다.</p> <p>시사프로그램에서 한 기업을 다룰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검토를 거듭한다. 어떤 경우는 사실과 달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거나 비난받는 경우도 있어, 방송으로 인해 무리한 피해나 파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p> <p>골프존의 &lt;스크린골프&gt;라는 아이탬은 기존의 기업들이 운영하던 사업과는 달리, 컴퓨터와 연관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업이었고, 골프존은 대한민국 스크린골프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p> <p>&lt;스크린골프&gt;를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슈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내내, 어느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과 공정을</p>	○		

		준수하여 취재하였다.			
교양	<p>시사플러스(1월 9일) 「갈등 빛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편을 시청하였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인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을 계속하여 빚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조명하는 방송이어서 좋았다. 박해영PD의 발음이 좋아 시청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고,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 등을 자세히 보고 취재하여 시청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해주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성남시의 지자체 운영방식을 예로 들어 취재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줬다. 서천군의 사례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선정 입찰시 평가항목의 오류로 해당업체가 위탁업체를 영구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천군 측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위탁업체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너무 커서 나레이터 음성이 묻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취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한찬희).</p>	<p>서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문제는 한 업체에 대한 파상적 공격에만 머물 수 있는 아이템을 대안 제시라는 측면을 강화했던 아이템이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 업체의 독점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갖가지 무성한 소문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다양한 업체들이 공존하는 모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실행 가능한 대안 부분을 부각시킨 점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배경음악과 영상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영상제작에 신경 쓰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1월 16일)에서 「방문간호사들의 잔인한 겨울」을 타이틀로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방문간호사들이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갑작스레 해고되는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방식을 고발하였다.</p> <p>이같은 공공부문 의료서비스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와 반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 천안, 아산, 금산, 홍성, 서천 등 5개 지자체의 예를 들어 취재해 보여줌으로써 지자체에서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비교분석해 보여줌으로서, 지자체의 열의와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있다. 방문간호사들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실어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고만이 능사가 아닌 상생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한찬희).</p>	<p>방문간호사문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p> <p>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희망인 방문간호사 문제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피해자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의 외진 곳의 문제들을 살펴보겠다.</p>			○

<p>교양</p>	<p>시사플러스 (1월 2일)에서 「대전. 충남의 현안은?」이라는 주제로 거시적 측면에서 대전 충남의 커다란 이슈를 조망하였다</p> <p>새해의 첫 방송으로 2014년에 지역의 뜨거웠던 현안을 되돌아보고, 올해에 예상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적한 것은 좋은 편성으로 보여진다.</p> <p>지난 해에는 충남 서산지역의 가로림만 조력발전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갯벌 훼손 문제 등으로 찬반 양측의 주민 갈등을 조장한 사례와 천안의 교교 평준화 관련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으로 여론조사와는 달리 시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사례 등이 있었고, 대전의 경우 서구의회의 원구성 파행으로 3개월이나 표류하면서 기초의회의 존립 필요성 문제를 짚었다.</p> <p>금년에는 대전시의 최대 현안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변경, 확정된 것을 들었고, 이후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예상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시 고가자기부상 방식으로 선택한 것을 변경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시내버스의 활성화로 대중교통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한중 FTA 체결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업 안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우리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p> <p>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세종시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지 않아 왜 세종시 부문을 뺐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특히 지난해 말로 정부부처나 국책기관 등이 이주가 완료 되었으므로, 금년에는 행정 수도의 완성과 대전시와의 연계 상생 방안 등이 중요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김명수).</p>	<p>세종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대전-충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과의 관계로 많은 고비와 시련들을 예상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문제의식을 보다 철저하게 갖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뉴스데스크 관련(1월 18일) 내용이다. 천안의 부탄가스 공장 화재사고가 당일 중요한 이슈여서 전국 방송에서 주요 내용으로 방영되었는데, 지방 뉴스에서 다시 동일한 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함으로써 뉴스의 신선감이 떨어졌다. 지역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주요 뉴스거리이기는 하나, 전국 방송에서 다루었을 경우 지역방송에서는 동일 내용을 단순히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한 소식이나 후속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지역뉴스만의 차</p>	<p>전국방송에서 송출된 뉴스가 지역방송에서 똑같이 방송되지 않도록 리포터 오디오 변경이나 내용 보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p>	<p>○</p>	

	<p>별화를 부여하고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명수).</p>			
교양	<p>사람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한해의 목표와 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다짐을 해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학년이 바뀌는 한 해이기도 하다.</p> <p>금년 허참의 토크&amp;조이(1월 3일)에서는 새해 첫 명사 초대자로 아시아의 빌게이츠라 불리우는 스티브 김(김윤종)을 초청해 맨손으로 이룬 아메리칸 드림 및 성공신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스티브 김은 먼 미국땅에서 동양인으로는 드물게 IT 업계에서 신화와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년이 20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아시안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2007년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꿈·희망·미래 리더쉽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삶, 소통,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다.</p> <p>이날 방송에서 스티브 김의 진솔한 체험과 성공 스토리를 잘 풀어 나갔으며, 가난한 유년 시절부터 꿈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가로서 몸소 체험한 이야기, 끝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일구어내기까지의 기업적 성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버리고 자선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용기와 앞으로의 비전 등을 생생하게 풀어 나갔고, 그의 이야기는 젊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본다. 또한 새해 첫 명사 초대자로 적합하였다고도 본다.</p> <p>그래서 앞으로는 허참의 토크&amp;조이 명사 초대자로 매월 1회 정도는 그 달에 맞는 인물을 선정 · 초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매월 그 달에는 “000 의 날”이 있는데 “000 의 날”에 맞는 인물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장백기).</p>	<p>스티브김(김윤종) 이사장은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 불릴만큼 IT업계의 성공인물로 꼽히고 있다. 토크엔조이 팀은 섭외를 위하여 일년 넘게 접촉을 가져왔고, 오랜 접촉의 결과물로 이번 방송물이 제작되었다.</p> <p>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 섭외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월별 테마에 맞는 인물의 섭외도 인상이 강하게 남는 달은 그 주제에 맞는 인물을 섭외하는 방안도, 제작진의 섭외 포인트로 고려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각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문제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그리고 동종 업체들 간 끊임없는 갈등 문제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p> <p>이번 1월9일 시사플러스에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천군 사례를 통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문</p>	<p>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며 다양한 업체들이 공존하는 모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실행 가능한 대안 부분을 부각시킨 점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갈등에 대한 증폭보다는 대안 제시와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는 시사플</p>	○	

	<p>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p> <p>우선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누적돼 온 갈등과 현재 상황으로 한 수탁업체가 장기간 운영업체로 선정된 점, 기존 동종업체와의 끊임없는 갈등, 노사분규 및 노사분규 봉합과정에서 서천군의 예산지원, 그리고 수탁업체가 제시한 협동조합으로 전환 미이행 등을 들고 바람직한 해법으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운영조례 제정 및 조례안에 업체선정 및 운영조항, 근로자보호지침을 담는 방안과 생활폐기물 업체들 간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수탁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로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기업이 처리 업무를 맡아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사례를 보여주었다.</p> <p>이번 시사플러스를 보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겪고 있는 비슷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해법이나 대안이 있을까, 내심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시청하였다.</p> <p>그러나 방송말미 경기도 성남의 청소용역업체들이 시민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민간위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된 대안모델 사례 제시를 보고 바로 이것이 시사플러스다 라는 걸 강하게 느꼈다. 시청자 입장에서 대안 없는 문제 제기와 공감 받지 못하는 대안 제시는 시사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잃는 지름길이다. 앞으로도 이번 방송편처럼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대전MBC의 시사플러스가 되어 주길 바란다(장백기).</p>	<p>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p>			
<p>보도</p>	<p>방송현장에서 동의어의 반복 인용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이나 뉴스의 리포팅, 인터뷰 등에서 자주 본다. 가을철이 되면 “ 넓은 광장에 나뭇구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난 연말부터는 “사랑의 온도탑이 예년 같지 않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 하다.”고 한다. 넓은 광장의 ‘광’은 넓다. 가로수의 나뭇잎의 ‘수’는 나무. 따뜻한 온정의 ‘온’은 따뜻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장에 나 뭇구는 가로수의 잎들이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로 쓰면 된다.</p> <p>이번 호주 아시안컵 축구 중계에서도 캐스터의 동의어 반복 사용은 여전히 있다. “고배의 잔을 마시다.”에서 ‘고배’의 ‘배’는 잔,</p>	<p>동의어 반복 사용을 지양하는 등 올바른 방송뉴스 기사가 송출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p>		<p>○</p>	

	<p>술잔을 의미한다. 그냥 “고배를 마시다.”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듯 동의어의 반복으로 의미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올해의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설 연휴에 즈음해서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보도 뉴스가 있다.</p> <p>“이 시간 역과 버스 터미널에는 손에 손에 선물 보따리나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로 점점 붐비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보따리’는 보자기로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이다. ‘꾸러미’는 꾸리어 뭉치어서 싼 물건으로 나와 있다. 올바른 표기와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p> <p>요즘에는 선물 보따리나 꾸러미를 든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대신에 가방(백)이거나 상자가 대부분이다(김학선).</p>				
교양	<p>지역사회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현안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다루는 시사플러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p> <p>1월 23일에 방송되었던 내용이 참신하고 좋았다.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크린골프업계의 대표주자인 골프존에 대한 취재였다. 스크린골프의 독점기업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골프존이 기존 사업주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기기판매를 하여 기존 업주들이 계속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골프존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취재한 것 같다. 이른바 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슈퍼갑의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잘 취재를 하였고 기존 업주들이 적자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스크린골프를 즐기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골프존의 문제점과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잘 방송을 하였다(성정모).</p>	<p>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내내, 어느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과 공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취재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프로그램 제작에 만전을 기했다.</p>	○		
보도	<p>요즘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학대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19일 뉴스에서 대전 어린이집 문제를 다루었다. 이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갖는 소감을 담고</p>	<p>어린이집 관련 보도 시, 보다 큰 틀 속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당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인 뉴스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있었다. 인터뷰 대상도 어린이집 원장과 대전 문화 어린이집 이사장이다. 물론 부모의 입장과 달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이나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아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CCTV로 인해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어린이집 이사장 인터뷰 내용에도 ‘왜 우리 어린이집만 CCTV 합니까? 대한민국에 교사가 어린이집만 있어요?’ 라는 멘트를 담고 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보육 문제에 관해 거시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부모의 입장도 카메라에 담았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만을 짚어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슴 앓이를 하는 부모의 입장을 담아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볼 수 있게 뉴스를 전달했어야 한다(유덕순).</p>				
<p>보도</p>	<p>뉴스 말미에 희망나누기 성금기탁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성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자못 궁금하다. 적절한 시점에 이를 뉴스로 다루어지길 바란다(송인덕).</p>	<p>이웃돕기성금의 사용처에 대한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뉴스의 ‘오늘의 이모저모’에서 보령시 머드 제품에 대한 PR성 기사를 보았다. 머드 제품을 설을 맞아 할인판매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상품광고를 뉴스 시간에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특정 지자체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송인덕).</p>	<p>단순 홍보성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뇌사 상태에 빠진 생후 다섯 달된 아기가 자신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뉴스에 이어 ‘장기기증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리포트물이 방송되었다. 미담을 먼저 내보내고 연이어 캠페인성 코너로 이와 같은 생명나눔의 장기 기증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든다는 내용은 참으로 설득력이 있는 뉴스 배치이다. 아쉬운 점은 장기기증 방법에 대한 소개가 생략되어 있는 점이다. 장기기증을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 지 이에 대한 소개가 필요했다고 본다(송인덕).</p>	<p>굵직한 이슈와 세세한 정보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뉴스의 지향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p>		<p>○</p>	

기타	홈페이지 뉴스 다시보기에 1월 21일 뉴스와 1월 22일 뉴스가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시정하기 바란다. 뉴스 다시보기란에 이미지 그림을 올려놓았는데 그 날 뉴스 영상에 맞는 타이틀 그림을 올려놓으면 좋겠다(송인덕).	바로 다시보기를 시정하였다. 이미지 그림을 올려놓는 부분은 연구해 보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 1월 23일 편에 ‘골프존 상생은 없는가?/일상으로 돌아온 기부’ 두 개의 아 이템이 소개되었다. 향토기업 골프존의 영 업방식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뒤 사회적 기업의 따뜻한 기부문화를 대비해서 소개 를 해주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프로그램 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시켜 주고 있다.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자신 들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 게끔 하는 참신한 구성이라고 본다(오덕 성).	기부문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성구의 모습 을 담았다. 시사프로그램은 사회의 어두 운 면 뿐 아니라 언론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야한다는 부분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는 미담이었다.	○		
보도	대전시가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문제로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고민 하듯이 세종시 또한 개발지와 개발 이전 구 조치원지역과의 균형발전 문제가 불거 지고 있다. 개발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멀 어져 변방지역으로 전락 되어가고 있는 지 역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본다. 이 런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 다(오덕성).	세종시도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등을 통 해 구 조치원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 중 이다. 세종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다 양한 아이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